

## ‘백가쟁명’ 시대 맞이한 어린이책 번역의 현주소

일반 교양물보다 더 세심한 번역기술 요구돼...

낮은 번역료와 짧은 번역기간이 전문번역가 양성 가로막아

어린이책 번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출신배경’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각 언어권의 전문가를 비롯해 일러스트레이터, 출판기획자, 유아교육가, 시인 등 각양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원서의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어린이책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 우리말 실력이다.

어린이책 출판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했다. 문학관련 출판에서 노하우를 풍부하게 쌓은 출판사들이 속속 아동물 시장에 뛰어들면서 번역물 출간이 붓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메이저급 출판사 서너곳에서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시리즈를 ‘전집’ 위주로 펴내 방문 판매하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서점에 가보면 문학·수필·실용문·과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정과 제목으로 단장한 어린이책 번역물들이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모국어에 대한 감수성 뛰어나야

어린이책 번역서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일반 교양물과 달리 번역가들의 직함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언어권의 전문가뿐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출판기획자, 유아교육가, 시인이나 작가 등 ‘출신배경’이 사뭇 다른 사람들이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번역하게 된 계기도 아이를 키우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사람부터 생계가 막막해서 뛰어들었다는 사람까지 제각각이며, 의외로 전문번역가를 목표로한 경우는 드물다. 이렇듯 아동물 번역가가 다양한 이유는 ‘쉬운 원어’ 때문이다. 해당 언어에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직독직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만 믿고 선볼리 뛰어들었

다간 큰 코 다친다. 아동물 번역은 ‘초벌번역’ 이후부터가 진짜 작업이다. ‘비룡소’ 편집부의 서영옥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 간결한 문장을 요구하게 된다. 번역가들은 수사적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문법과 정황의 사실성을 넘어서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곤란하다”며 쉬우면서도 정확한 번역을 강조했다.

어린이책 번역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문을 우리의 언어와 실정에 맞게 가다듬는 일이다. 원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동화 속에 삽입된 에피소드가 우리 실정과 맞지 않아 통째로 빼거나 완전 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읽기 좋게 리듬을 살리고 복문과 대명사를 없애고 단문으로 만들면, 번역이 아니라 거의 ‘창작’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서의 주제와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동물 번역이다.

시인 이상희씨는 최근 3년 동안 40여권의 아동물을 우리말로 옮겼다. 그는 과거 출판 기획자로 일했으며 일찌감치 동화창작에도 나섰다.

“시를 쓰면서 번역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실제로 그림책이나 동화는 시와 비슷해요. 읽는다고보다 말이 저절로 구르려는 느낌이 들게 번역하죠.”

모국어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날수록 좋은 번

역이 나온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 동화책을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으로 파악한다.

“펼치면 보이는 먼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림과 글의 모양새, 읽을 때 느끼는 어감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하죠. 각주를 달지 않는 것도 원작의 예술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글과 그림을 보며 느끼는 ‘첫인상’도 매우 중요하죠.”

### 번역가의 고뇌 담긴 표현 존중해야

김서정씨는 <문지아이들> 기획위원이며 <한국전래동화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동문학 전공자다. 지금까지 <에리히 캐스트너 전집>(시공주니어) 등 70여권을 번역했고 동화 창작도 겸한다.

“동음이의어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거나 영어나 독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뒤바꾸는 등의 ‘언어유희’에 부딪힐 경우, 원서에서는 책의 재미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번역할 방법이 없어 무척 난감합니다.”

등장인물의 심리상태가 복잡하거나 그 문화권 특유의 정서가 드러난 경우 또한, 그 뉘앙스를 살리려다보면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진다. 그래도 그는 원저자의 문체를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는 편이다. 그는 출판사가 이런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판사들은 대부분 쉽고 재밌어야 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번역가의 고뇌가 담긴 표현을 마음대로 교정하고 삭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땐 정말 황당하고 번역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나친 판매지상주의와도 연결되는데, 그는 요즘 쏟아져나오는 번역물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원서를 선정



아동번역물의 증가 추세에 비해 번역가는 몇몇 전문가들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사진은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번역가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이상희씨, 김서정씨, 박정선씨, 김경연씨.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동도서에서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면 내용은 덮어두고 계약부터 하고 보는 불쌍사나운 일도 비밀비재하다. 그는 “정작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양질의 책들은 소개되지 않고, 특정 경향의 책에만 몰리게 돼 결국 시장만 쓸데없이 비대해진다”고 덧붙였다.

#### 일반물보다 더 뛰어난 원어실력 요구돼

‘햇살과나무꾼’은 10년째 아동물을 번역해온 전문집단이다. 이들이 작업하는 스타일을 보면 번역가가 갖춰야 할 조건이 어떤 것들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아동문학 관련 잡지나 출판 에이전시의 자료, 인터넷 서점에서 최신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번역대상 목록을 작성한다. 필요한 원서는 종종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 출판사에서 제공받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점이나 현지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할 때가 많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공부합니다. 아동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읽죠. 또 외국잡지와 인터넷에서 구한 홍보문건을 번역해서 토론했습니다. 최소한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어린이책 번역가는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박정선 실장의 말이다. 일본어 번역을 전담하는 이선아씨는 “일본어로 된 동화책의 경우 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교양물보다 더 뛰어난 원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실장은 중간중간 불가피하게 개작하더라도 원작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린이책 번역자들에게 둘도 없는 ‘교본’이다. 아동물 번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쓰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연씨는 독일어권 아동물 번역에 호가 난 인물이다. 1995년에 한길사에서 펴낸 <그림동화 시리즈>(그림 형제, 전10권)는 국내에 소개된 첫 독일동화 전집이다. 페터 뷔르거의 ‘제도예술’을 연구하며 교양물 번역도 활발히 해왔던 그는 번역을 시작하면서 이론적인 작업도 병행했다. 최윤정씨(<문지아이들> 기획위원) 등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한국 아동문학사를 훑고나서 곧바로 오스트리아의 ‘국제청소년문학연구소’로 건너가 3개월 동안 공부했다. 이어 ‘민헌도서관’에도 3개월 동안 단기연구생의 자격을 얻어 다녀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넓은 줄은 몰랐죠. 그 당시 우리에게 아동물 하면 ‘동화’였는데 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디오북 등 타매체와의 연계, 각종 정보를 재미있게 전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과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어 번역은 ‘호흡’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다른 라틴어 계열 언어와는 끊고 붙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번역 후 반복해서 읽고 어색한 곳을 수정한다.

“어른들은 번역본을 읽으며 ‘원서는 어떨까’ 상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읽고 있는 것을 ‘원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번역가들은 아동물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획자들도 출판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책 중에서 고르는 것을 자기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현상이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특히 6·25 이후 70년대까지는 아동문학의 공백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시절을 보낸 지금의 번역자·출판기획자들이 동화책을 못보고 자란 것도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론서나 작가론 번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달릴 생각이다.

#### 단가는 낮고, 시간은 짧고

전문 번역가들은 원고지 30~40매 분량의 그림책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글자도 몇자 되지 않는데 무슨 한달씩이나’ 하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달도 부족하다고 본다. 번역 당시에는 해당 언어의 표현 논리에 묶여 있어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 ‘장력’에서 벗어나면, 우리말 논리와 표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원고를 볼 수 있게 되고, 훨씬 순도 높은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아동물 번역을 아예 ‘돈되는 장사’ 썸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현실에서, 그 한달이라는 기간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번역단가도 낮다. 그림책 한권 번역해봐야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30만원을 밑돈다. 또 인세로 계약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번역가들은 대부분 ‘매절’ 형식으로 계약한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작업량을 늘리게 되고 번역의 질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번역물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번역가는 몇몇 사람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웅진닷컴’의 김공희씨는 전문 번역인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문학동네’ 편집부의 박상욱씨는 “어린이책 번역출판 경력이 일천한 신생출판사는 일단 ‘종수확보’에 주력한다. 아동물 전문출판사의 이미지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번역가에게 출판사의 의견을 반영해 주길 요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신문화의 ‘전령사’인 번역가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육성될 토대도 빈약한 우리 아동물 번역 수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 강성민 기자